

‘김여사 라인’ 갈등 가열...尹·韓 독대 앞 ‘계파싸움’ 격화

친한 “여사 문제 공론화 불가피” vs 친윤 “집권당 갈등 부각 부적절” 오늘 재보궐 결과 따라 내홍 격화 전망...주가 조작 기소 여부도 관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한남동 라인’의 실제 여부를 놓고 여권 내 계파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한남동 라인을 겨냥해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의 라인은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당내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가 정면으로 맞서는 듯한 기류다. 친한계는 15일에도 김 여사 주권 정리를 재차 요구했다. 친윤계는 한 대표가 실제 없는 이야기를 한 다면서 반발했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김

여사 라인 없다’는 전남 대통령실의 설명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6공화국 출범 이후 어떤 정권에서도 여사가 라인을 형성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여사는 공적으로 선출된 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남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한 대표 측근을 ‘도곡동 7인회’로 부르며 “인적 쇄신은 대표표실이 우선”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한 대표에게 물었다더니 ‘나는 도곡동에서 회의를 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런 게 어디 있냐’라고 했다”며 “도곡동 모임이라는 게 대체 뭘가”라고 되물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KBS 라디오에서 “여사 문제는 이제 공론화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왔다”라며 “쉬쉬하면서 풀릴 단계는 이미 지나갔고, 대통령실에서 그런 기회를 제공도 안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야당이나 장삼이사들은 한남동 라인이라고 하는 구체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집권 여당 대표가 거론하면 지지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보안을 유지하면서 독대에서 설득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친윤계 한 중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거를 앞두고 당을 책임지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갈등을 부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것이 김 여사 라인이 추천했

는지, 누가 추천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친한계와 친윤계의 계파 갈등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 결과, 그리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등에 달려 있다는 게 중론이다. 16일 재보선 중 당의 전통적 ‘뒀방’으로 평가받아온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패배할 경우 내용이 더 격화할 전망이다. 친한계는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 의혹이 패배의 결정적 요인이라며 대통령실을 향한 쇄신 요구를 더 강하게 몰아붙일 수 있고, 친윤계는 선거운동을 지휘한 한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할 수 있어서다. 오는 17일 발표가 유력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

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다면 친한계는 야당이 추진하는 ‘김여사 특검법’을 받아들일 노력이 약해졌다고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수 있다. 친윤계는 불기소를 근거로 김 여사를 염호하면서 양측이 다시 한번 충돌이 불가피해진다. 한 대표는 앞서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야 한다고 말하며 사실상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친윤계는 여론재판을 하자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야당이 김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해 국회 표결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 국회 재표결이 반복될 경우 최근 ‘세력화’에 나선 친한계가 표결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계파 갈등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오른쪽 두번째)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권자 손으로 2차 정권 심판 완성해달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보궐 선거 앞 SNS에 투표 독려 메시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여러분의 손으로 2차 정권 심판을 완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2차 심판의 날이 하루 남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뒤 “저는 오늘 재보 출석의 의무를 다하러 간다”며 이날 지원 유세에는 합류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제가 다 하지 못하는 야당 대표의 역할을 여러분이 대신해 달라. 손이 닿는 모든 연고지를 찾아 투표를 독려해달라”면서 “이번 선거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민심을 거역하는 정권에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일깨울 절호의 기회이며 주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은 주권자의 책임이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국감 현장

박군택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액 두배 늘려야”

평동 포 사격장 폐쇄 촉구도

더불어민주당 박군택(광주광산갑) 국회의원이 군사법원(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기준 완화, 평동 포 사격장 폐지를 촉구했다. 15일 박 의원은 최근 열린 비공개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고 밝혔다. 군 공항과 인접한 지역에 대한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은 소음대책 지역을 제1종부터 제3종까지 구분하고 있다. 이 구분에 따라서 1종부터 3종까지 각각 월 6만원, 4만5000원, 3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마저도 2011년 이후에 이주한 가구에게는 50% 감액된 보상금이 지급되어 보상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3종 구역은 지역에 따라 소음 기준도 다르다. 광주 군 공항의 경우 3종 구역의 소음영향도 85데시벨 이상 90데시벨 미만이지만, 세종특별자치시, 강릉, 오산, 원주 등의 지역은 같은 3종 구역이라도 소음 기준이 80데시벨 이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소음 기준이 낮으면 그만큼 피해 보상의 대상이 되는 주민의 수는 증가하게 된다. 박군택 의원은 “광주, 대구, 수원지역의 경우 다른 중소도시보다 소음피해 보상에 대한 기준이 높다”며 “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군공항이 지역주민의 환영을 받기 위해서도 보상 기준이 완화되고, 액수도 두 배쯤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광산구 평동에 위치한 포사격장의 폐쇄 필요성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장성의 상무대에 이미 포 사격장이 만들어져 있고, 김관진 국방부 전 장관도 광주 포사격장 폐지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검토했었다”며 “국방부가 마음먹고 추진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평동 포사격장 폐지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박찬대 “대통령 부부, 명태군 거짓이라면 고발해야”

민주, 국감 대책회의...“부당거래 의혹 직접 해명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명태군씨 논란에 대해 공세를 이어갔고, 대통령실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통령 부부와 명태군씨에 대해 수상적인 부당거래 의혹이 날마다 터져 나온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더는 피하지 말고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거짓말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침묵으로 위기를 피해 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며 “명씨의 발언들이 거짓말이면 거짓말이라고 밝히고, 명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 된

다. 사실이라면 소상하게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김 건희 라인’의 존재를 부정하며 ‘대통령 라인’만 있다고 말했다”며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한 정황들이 술하게 있다. ‘대통령 라인’만 있다는 주장은 곧 김 여사가 대통령이라는 뜻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남 전 행정관 발언에 대해서도 ‘유언비어’라고 했다”며 “국민과 언론을 바보 취급하는 태도다. 김 전 행정관의 말이 유언비어라면 왜 그를 고발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날 명태군씨가 윤석열 대

령이 대선 경선 후보였을 당시 윤 대통령 부부와 자주 연락하며 조연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 매일 6개월간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명 씨가 김 여사와 나는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데 대해서도 “당시 윤 대통령의 국민 의원 입당 전 사적 대화일 뿐”이라고 말했다. 명 씨가 이날 공개한 문자를 보면 김 여사가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등 표현이 담겨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씨 카카오톡에 등장한 오빠는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